

서울시 일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 실태

정인선 ·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교육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The Analysis of the Internet Use Behavior Among Adolescents

Jeong, Insun · Moon, Inok*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net usage patterns among adolesc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69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employed and data were analysed by SPSS 12.0.

Major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students were found to be the normal internet users. On the other hand, potential risk group was 8.2% and high risk group was 4.7%. Every students have had an experience of inter use. The 90.6% of the students' households had internet link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were using internet more than 3 hours a day was 25.7%, and The most popular type of website was entertainment.
2. Male students showed greater percentages of potential risk and high risk group than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having parents in divorce, remarriage and separation were more likely to be in potential risk group than those having normal parents. The staying alone in home after school and small sleeping time were positively related to high level of internet addiction.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in potential risk and high risk group were longer duration of the internet use, internet use through the whole week, frequent internet use late at night, frequent use of pornographic site, main purpose of internet use for entertainment and shortage of rest during internet use.

This study results had an limitation of generalizing to entire Korean adolescents because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Future study was needed for the analysis of internet use behavior of the entire Korean adolescents, an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rate predictors for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adolescent, internet use behavio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짧은 시간동안 급속도로 보급된 인터넷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영역으로 정착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이 단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요소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를 통해 다양한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상에 많은 혜택이 주어졌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분별한 정보유출, 불건전한 정보유포, 개인정보 노출, 지나친 흥미위주의 이용, 통신용어의 어법문제, 시력저하, 수면부족, 중독 현상 등의 문제점 가운데 인터넷 중독은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김종범과 한종철, 2001; 김혜원, 2001; 오원옥, 2004).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1996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Goldberg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학업, 직업, 심리 영역에 크게 손상을 가져오는 중독 증상으로 진단하면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임상질환으로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Goldberg, 1996). 실제로 인터넷 중독은 알코올·도박·쇼핑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의존성, 갈망과 내성, 금단증상, 사회적 손상, 학업실패, 일상생활 장애, 통제력 상실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Young, 1998; 김형준 등, 2002; 류은정 등, 2004).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률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4), 2004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 월 1회 이상 사용자 기준으로 3,067만 명(68.2%)으로 이 가운데 6세 이상 19세 이하 연령집단의 인터넷 사용률은 95.5%로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정보통신부, 2004).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집단임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게 위험한 까닭은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시기로서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정서 및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판단력이 미비하여 인터넷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오원옥, 2004), 모방범죄, 성문제, 폭력, 자살, 살인 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배양이 정상적으로 성취되지 못할 수 있고(청소년 문화 연구소, 2000), 자아존중감 저하, 자기 효능감 저하,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시력저하, 척추 측만증, 운동부족, 수면부족, 체력저하와 같은 신체적 문제 등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 인터넷 중독성은 매우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보건교육을 통해 형성된 건강 지식이나 태도, 행위는 평생동안의 건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김 명, 1993), 이 시기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이 형성된다면 평생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예방을 보건교육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보건교육 교과과정으로 구성함은 물론 효과적인 예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특성,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한다.
- 3)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교 5개교(강북 3개교, 강남 2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강북 3개교, 강남 3개교)를 편의추출한 후, 각 학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 총 1,16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들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내용

1) 인터넷 중독수준

인터넷 중독수준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도구인 한국형 인터넷 중독검사(K-척도) 중·고등학생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 행동, 내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type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 되어 있다.

총점을 기준으로 88점 이하는 평균적인 이용자로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 군이며, 89~103점은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군이다. 또한 104점 이상은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고 위험군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12$ 로 나타났고, 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일상생활장애 0.856, 현실구분 장애 0.752, 긍정적 기대 0.864, 금단 0.843, 가상적 대인관계 0.828, 지향성 일탈행동 0.831, 내성 0.800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사용특성

인터넷 사용경험, 인터넷 사용기간, 가정의 인터넷 연결 유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요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 성인 사이트의 접속경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사용 중 휴식시간, 유해 사이트 제한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를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 한 후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특성, 인터넷 중독수준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과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은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 중학생은 48.8%, 고등학생은 51.2%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49.7%, 여학생이 50.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강북이 56.8%, 강남이 43.2%로 나타나 강북지역 대상자가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58.9%)이 가장 많았고, 상(22.7%), 하(18.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9.4%)이 대학교 졸업 이상(1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52.5%)이 고등학교 졸업(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후 함께 있는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49.7%)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끼리(26.6%), 혼자(20.3%)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에 대한 부모의 건강 관심도는 '관심 있다'가 67.6%, '조금 관심있다'가 28.0%, '관심 없다'가 4.0%로 나타났다.

인지된 학업 성적은 13.5%가 '아주 잘 함', 22.2%가 '잘 함', 41.0%는 '보통임', 23.3%는 '뒤떨어 짐'이라고 응답하였고, 수면시간은 7~9시간 미만인 54.0%로 나타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5~7시간 미만, 9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순이었다(표 1).

2) 인터넷 사용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특성은 <표 2>와 같다. 인터넷 사용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대상자는 98.5%였고,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는 1.5%에 불과했다.

대상자의 평균 인터넷 사용기간은 4.34년이었고, 인터넷을 사용해온 기간이 1~2년 미만인 학생은 1.7%명이었으며, 1년 미만의 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기간이 4~6년 미만인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2~4년 미만이 23.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가정의 90.6%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93.4%가 집이라고 응답하였고, PC방은 3.3%, 학교는 2.2%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가 보편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일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3.5%, 주말에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17.8%였으며 78.6%의 대상자들은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1~2시간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21.1%), 2~3시간(18.7%), 3~4시간 미만(12.4%), 4~5시간 미만(7.6%)순이었으며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5.7%를 차지하였다. 하루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25.7%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9시~밤 12시가 40.4%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오후 9시가 29.4%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밤 12시 이후에 사용하는 대상자는 약 1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의 종류에 있어서는 통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명 (%)
학교급	중학생	570 (48.8)
	고등학생	599 (51.2)
지역	강북	664 (56.8)
	강남	505 (43.2)
성별	남	580 (49.7)
	여	586 (50.3)
가정의 경제수준	상	240 (22.7)
	중	652 (58.9)
	하	195 (18.4)
부모결혼상태	결혼	1,056 (91.4)
	이혼	56 (4.8)
	별거	12 (1.0)
	사별	18 (1.6)
	재혼	14 (1.2)
어머니 학력	초졸미만	9 (0.8)
	초졸	31 (2.7)
	중졸	65 (5.7)
	고졸	561 (49.4)
	대졸이상	471 (41.4)
아버지 학력	초졸미만	13 (1.1)
	초졸	18 (1.6)
	중졸	50 (4.4)
	고졸	460 (40.4)
	대졸이상	598 (52.5)
학교 후 주로 함께 있는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577 (49.7)
	형제 또는 자매끼리만	308 (26.6)
	혼자	235 (20.3)
	기타	39 (3.4)
부모의 건강 관심도	관심이 많다.	785 (67.6)
	조금 관심 있다.	325 (28.0)
	관심이 없다.	47 (4.0)
	기타	5 (0.4)
인지된 학업성적	아주 잘함	155 (13.5)
	잘함	255 (22.2)
	보통임	472 (41.0)
	좀 뒤떨어짐	268 (23.3)
수면시간	5시간 미만	27 (2.9)
	5~7시간 미만	331 (35.2)
	7~9시간 미만	508 (54.0)
	9시간 이상	75 (8.0)
계		

<표 2> 인터넷 사용특성

항 목	구 분	명 (%)
인터넷 사용경험	현재 사용하고 있다.	1,151 (98.5)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7 (1.5)
인터넷 사용기간	1~2년 미만	19 (1.7)
	2~4년 미만	253 (23.2)
	4~6년 미만	615 (56.4)
	6년 이상	204 (18.7)
인터넷 설치유무	연결 안 됨	110 (9.4)
	연결 됨	1,058 (90.6)
사용요일	평일에만 사용한다.	41 (3.5)
	주말에만 사용한다.	206 (17.8)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한다.	909 (78.6)
하루 평균 사용시간	1시간 미만	244 (21.1)
	1~2시간 미만	397 (34.3)
	2~3시간 미만	216 (18.7)
	3~4시간 미만	145 (12.4)
	4~5시간 미만	89 (7.6)
	5시간 이상	67 (5.7)
사용시간대	오후3시~오후6시 미만	220 (19.4)
	오후6시~오후9시 미만	333 (29.4)
	오후9시~밤12시 미만	458 (40.4)
	밤12시~새벽3시 미만	102 (9.0)
	새벽3시~오전6시 미만	10 (0.9)
	오전6시~오후6시 미만	11 (0.9)
사용장소	학교	26 (2.2)
	집	1,082 (93.4)
	친구집	5 (0.4)
	PC방	38 (3.3)
	기타	8 (0.7)
성인사이트 접속횟수	거의매일	68 (5.9)
	일주일에 1~2회	131 (11.4)
	한 달에 1~2회	161 (14.0)
	지금까지 1~2회	352 (30.6)
	한 번도 접속한 적 없음	440 (38.1)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의 종류	정보형(숙제, 정보검색)	131 (11.4)
	오락형(온라인 게임)	727 (63.2)
	통신형(채팅, 개인홈피 관리)	293 (25.5)
인터넷 사용중 휴식시간	1시간 미만	316 (27.2)
	1~2시간 미만	408 (35.2)
	2~3시간 미만	190 (16.4)
	3시간 이상	94 (8.1)
	쉬지 않는다.	90 (7.7)
	기타	62 (5.3)
유해 사이트 제한 프로그램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다.	658 (57.0)
	설치되어 있다.	497 (43.0)

신형(채팅, 개인 홈페이지 관리)이 25.5%였고 정보형(숙제, 정보검색)이 11.4%였으며, 오락형(온라인 게임 등)은 정보형의 약 5.5배, 통신형의 약 2.5배인 63.2%를 차지해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청소년들의 학습 관련 사이트가 늘고 있고,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업, 진로, 고민 등에 대한 상담사이트를 개설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영역이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오락이나 쾌락적 도구로의 이용을 좀 더 진지하고 학습적인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사이트의 접속에 있어서는 61.9%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5.9%는 거의 매일 접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1.4%는 일주일에 1~2회 접속한다고 하였으며, 14.0%는 한 달에 1~2회 접속한다고 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유해 사이트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가정 내 컴퓨터에 유해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3.0%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중 휴식시간은 개개인의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1~2시간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순이었다.

3) 인터넷 중독수준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수준은 <표 3>과 같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고 위험군은 4.7%로 나타났고,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가 발

<표 3> 인터넷 중독수준

구 분	명 (%)
일반 사용자군	989 (87.1)
잠재적 위험군	93 (8.2)
고 위험군	53 (4.7)
계	1,135 (100.0)

생한 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군은 8.2%였으며, 평균적인 이용자로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군은 87.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수 등(200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중독군이 2.1%였고, 이석범 등(2001)의 연구에서는 2.9%가 중독군이었으며, 김형준 등(2002)의 연구에서는 3.6%가 중독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 위험군이 4.7%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이 이제 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각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위험군은 8.2%로 나타나 고 위험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앞으로 인터넷이 청소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중독 수준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학업성적, 부모관심, 수면시간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중 잠재적 위험군은 10.8%, 고 위험군은 6.7%, 여학생 중 잠재적 위험군은 5.6%, 고 위험군은 2.6%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 위험군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중독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결혼관계인 경우 잠재적 위험군은 7.4%, 고 위험군은 5.0%로 나타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일반적 특성	구 분	인터넷 중독수준			x ²
		정상 이용군 명 (%)	잠재적 위험군 명 (%)	고 위험군 명 (%)	
학교급	중	485 (87.7)	39 (7.1)	29 (5.2)	2.517
	고	504 (86.6)	54 (9.3)	24 (4.1)	
지역	강북	568 (87.5)	51 (7.9)	30 (4.6)	0.241
	강남	421 (86.6)	42 (8.6)	23 (4.7)	
성별	남	466 (82.5)	61 (10.8)	38 (6.7)	21.978***
	여	520 (91.7)	32 (5.6)	15 (2.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96 (84.8)	17 (7.4)	18 (7.8)	6.981
	중	529 (87.6)	50 (8.3)	25 (4.1)	
	하	166 (86.9)	19 (9.9)	6 (3.1)	
부모결혼상태	결혼	898 (87.6)	76 (7.4)	51 (5.0)	8.940*
	이혼, 사별, 별거, 재혼	80 (82.5)	15 (15.5)	2 (2.1)	
어머니의 학력	고졸미만	85 (83.3)	13 (12.7)	4 (3.9)	3.940
	고졸	485 (88.5)	41 (7.5)	22 (4.0)	
	대졸이상	394 (87.0)	36 (7.9)	23 (5.1)	
하교 후 함께 있는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495 (88.7)	45 (8.1)	18 (3.2)	4.681
	형제/자매끼리, 혼자	451 (85.4)	46 (8.7)	31 (5.9)	
학습성적	아주 잘 함	129 (87.2)	16 (10.8)	3 (2.0)	17.468**
	잘 함	220 (89.0)	16 (6.5)	11 (4.5)	
	보통	405 (87.1)	45 (9.7)	15 (3.2)	
	뒤 떨어짐	228 (88.7)	15 (5.8)	14 (5.4)	
부모관심도	관심 많음	671 (88.5)	59 (7.8)	28 (3.7)	13.345**
	조금 관심있음	272 (85.3)	25 (7.8)	22 (6.9)	
	관심없음	35 (74.5)	9 (19.1)	3 (6.4)	
수면시간	5시간 미만	18 (66.7)	5 (18.5)	4 (14.9)	13.579*
	5~7시간 미만	279 (87.7)	24 (7.5)	15 (4.7)	
	7~9시간 미만	436 (87.7)	41 (8.2)	20 (4.0)	
	9시간 이상	62 (86.1)	4 (5.6)	6 (8.3)	

* p<0.05, ** p<0.01, *** p<0.001

(무응답 제외)

났고, 이혼, 재혼, 별거 등인 경우 고 위험군은 2.0%로서 결혼관계일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결혼관계의 2배 이상인 15.5%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아주 잘 함'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은 10.8%로 '뒤떨어짐'의 잠재적 위험군 5.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고 위험군에 있어서는 '뒤떨어짐'이 5.4%로 '아주 잘 함'의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고 위험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잠재적 위험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므로 인터넷 중독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아주 잘 함'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은 10.8%로 '뒤떨어짐'의 잠재적 위험군 5.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고 위험군에 있어서는 '뒤떨어짐'이 5.4%로 '아주 잘 함'의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고 위험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잠재적 위험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므로 인터넷 중독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잠재적 위험군은 18.5%, 고 위험군은 14.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에 있어서 약 2배 이상 높고, 고 위험군의 비율에 있어서 약 3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

학교급, 지역, 하교 후 함께 있는 사람,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수준을 평균 이용자와 문제 이용자로 분류한 권구영과 이해자(2002)의 연구에서 남학생 중 문제 이용자는 40.3%, 여학생 중 문제 이용자는 35.8%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

터넷 중독수준이 높았고,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김혜원(2001), 이명수 등(2001), 이석범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아직 인터넷 중독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상태가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불안정한 결혼상태가 자녀에게 불안과 우울을 유발시키고, 불안과 우울이 인터넷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김종범과 한종철(2001)의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권구영과 이해자(2002)의 연구에서도 문제 이용자 44%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조사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에게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수요소로 정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달리 생각하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인터넷 중독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 사용특성은 사용요일, 일 평균 사용시간, 사용시간대, 사용장소, 성인사이트 접속횟수,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의 종류, 인터넷 사용 중 휴식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명(%)

인터넷 사용특성	구 분	인터넷 중독수준			x ²
		정상 이용군	잠재적위험군	고 위험군	
사용요일	평일에만 사용	35 (87.5)	3 (7.5)	2 (5.0)	21,112***
	주말에만 사용	192 (96.0)	7 (3.5)	1 (0.5)	
	평일, 주말 모두 사용	761 (86.3)	76 (8.6)	45 (5.1)	
일평균 사용시간	1시간 미만	222 (94.5)	9 (3.8)	4 (1.7)	127,528***
	1시간~2시간 미만	351 (90.9)	24 (6.2)	11 (2.8)	
	2시간~3시간 미만	188 (90.8)	14 (6.8)	5 (2.4)	
	3시간~4시간 미만	116 (81.1)	21 (14.7)	6 (4.2)	
	4시간~5시간 미만	62 (71.3)	18 (20.7)	7 (8.0)	
	5시간 이상	43 (65.2)	5 (7.6)	18 (27.3)	
사용시간대	오후3시~오후6시	188 (87.7)	15 (7.1)	11 (5.2)	26,799**
	오후 6시~오후9시	289 (88.4)	25 (7.6)	13 (4.0)	
	오후9시~밤12시	395 (88.8)	35 (7.9)	15 (3.4)	
	밤12시~새벽3시	78 (80.4)	9 (9.3)	10 (10.3)	
	새벽3시~오전6시	5 (50.0)	2 (20.0)	3 (30.0)	
	오전6시~오전9시	9 (81.8)	1 (9.1)	1 (9.1)	
성인사이트 접속횟수	거의 매일 접속	47 (70.1)	15 (22.4)	5 (7.5)	76,187***
	일주일에 1~2회 접속	103 (81.1)	18 (14.2)	7 (5.5)	
	한 달에 1~2회 접속	125 (82.2)	21 (13.8)	6 (3.9)	
	지금까지 1~2회 접속	313 (91.5)	17 (5.0)	12 (3.5)	
	한 번도 접속 안 함	396 (92.1)	23 (5.3)	11 (2.6)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의 종류	정보형	116 (90.6)	11 (8.6)	1 (0.8)	10,998*
	오락형	604 (85.1)	63 (8.9)	43 (6.1)	
	통신형	253 (90.4)	19 (6.8)	8 (2.9)	
인터넷 사용 중 휴식시간	1시간 미만	286 (93.8)	16 (5.2)	3 (1.0)	74,559***
	1~2시간 미만	358 (89.9)	25 (6.3)	15 (3.8)	
	2~3시간 미만	153 (83.6)	22 (12.0)	8 (4.4)	
	3시간 이상	68 (73.9)	17 (18.5)	7 (7.6)	
	쉬지 않는다	61 (70.1)	10 (11.5)	16 (32.7)	
유해 사이트 제한	설치 안 됨	570 (88.2)	52 (8.0)	24 (3.7)	2,519
프로그램 설치	설치 됨	409 (85.9)	40 (8.4)	27 (5.7)	

* p<0.05, ** p<0.01, *** p<0.001

인터넷을 주말에만 사용하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이 3.5%, 고 위험군이 0.5%인 반면,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하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이 8.6%, 고 위험군이 5.1%였으며, 평일에만 사용하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이 7.5%, 고 위험군이 5.0%로 나타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집단이 인터넷 잠재적 위험군과 고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일 평균 사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을 분석한 결과,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이 3.8%, 고 위험군은 1.7%였고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군과 고 위험군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의 잠재적 위험군은 7.6%, 고 위험군은 27.3%로서 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할수록 중독수준이 높았다.

사용시간대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에서는 오후 3시~밤 12시 사이에 사용하는 집단 중 잠재적 위험군은 7.1~7.9%, 고 위험군은 3.4~5.2%로 나타났다. 그러나 밤 12시~새벽 3시에 사용하는 집단 중 잠재적 위험군은 9.3%, 고 위험군은 10.3%로 나타났고, 새벽 3시~오전 6시에 사용하는 집단 중 잠재적 위험군은 20.0%, 고 위험군은 30.0%로 나타나 오후시간이나 오후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보다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 사용하는 집단이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었다.

성인사이트의 접속횟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에서는 거의 매일 접속하는 집단 중 잠재적 위험군은 22.4%, 고 위험군은 7.5%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접속횟수가 적어질수록 잠재적 위험군과 고 위험군의 비율은 낮아졌다.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집단 중 잠재적 위험군은 5.3%, 고 위험군은 2.6%로 나타나 매일 접속하는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중독 수준을 보였다.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의 종류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은 오락형이 통신형과 정보정보보다 잠재적 위험군, 고 위험군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오락형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 중 고 위험군은 6.1%였고, 통신형은 2.9%인데 반해 정보형은 0.8%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 중 휴식시간에 따른 중독수준은 1시간 미만 간격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 5.2%, 고 위험군이 1.0%로 나타났으나 휴식간격이 커질수록 위험수준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3시간 이상의 간격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 18.5%, 고 위험군 7.6%였으며, 쉬지 않을 경우 잠재적 위험군 11.5%, 고 위험군 32.7%로 나타남으로써 휴식없이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이미 고 위험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권구영과 이해자(2002)의 연구에서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문제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오랜 시간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수면부족, 시력약화 등의 신체적 문제와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박성은 등, 2003)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로 오락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소영과 권정혜(2001)의 연구결과 인터넷 게임을 많이 사용할수록 중독수준이 높고, 인터넷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정보형 사용자들은 정보검색을 통해 학업이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성인 사이트에 자주 접속할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덕모(2003)는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성 충동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 성

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확립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의 실태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일부 중·고등학교 청소년 1,169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수준은 일반적 사용군이 87.1%, 잠재적 위험군이 8.2%, 고 위험군이 4.7%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사용은 모든 대상자가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가정의 90.6%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25.7%였으며,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오락형(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 위험군이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이혼, 재혼, 별거 등인 경우에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하교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경우,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고 위험군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 3)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

넷 사용시간대가 늦은 밤 시간에서 새벽인 경우, 성인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 할수록,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가 오락형인 경우, 인터넷 사용 중 휴식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2)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련변인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권구영, 이해자(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 간에 관계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59-87.
2. 김덕모(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3); 5-50.
3. 김 명(1993).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0(2), 22-31.
4. 김종범, 한종철(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13호.

5. 김형준 등(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요인 관련 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6.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8(2).
7. 류은정 등(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1); 102-110.
8. 박성은 등(2003). 일개 중소도시에서 PC방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VDT 증후군,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9(1); 10~16.
9. 오원옥(2004).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1); 48-58.
10. 이명수 등(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과학, 40(4); 616-625.
11. 이석범 등(2001).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대한신경의학, 40(6), 165호, 1174-1184.
12. 이소영, 권정혜(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8-269.
13. 정보통신부(2003).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14. 장세진(1993). 스트레스, 건강통계 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예방의학회지, 26(1), 121-159.
15. 통계청(2004). 사망통계연보.
16.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
17.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18. Young, K.(1998).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19. 정보통신부. www.mic.go.kr
2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